2016학년도 논술고사 문항 및 해설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토요일 오전)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가)

Does natural selection choose among species? If so, we might expect individual organisms to behave altruistically "for the good of the species." They might limit their birthrates to avoid overpopulation or restrain their hunting behavior to conserve the species' future stocks of prey. […] Or does natural selection, as I urge instead here, choose among genes? In this case, we should not be surprised to find individual organisms behaving altruistically "for the good of the genes"; for example, by feeding and protecting kin* who are likely to share copies of the same genes. Such kin altruism* is the only way in which gene selfishness can translate itself into individual altruism.

*kin: 동족/동류, *altruism: 이타주의

R. Dawkins, *The Selfish Gene*

(나)

우리가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굽는 사람들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에 의존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말해야 한다. 개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의도도 없고, 얼마나 공익을 증진시키는지도 모른다. 개인은 자신의 사적 이익만 추구하고, 이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고 있다. 개인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사회적 공익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경우가 많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고등학교 경제, OO출판사)

<제시문 2>

우유가 죄다 어디로 사라지는지는 얼마 안 가서 밝혀지게 되었다. 우유는 매일 돼지들이 먹는 사료에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과수원에서는 이른 사과가 익기 시작했고 바람에 떨어진 사과 알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다. 동물들은 그 떨어진 사과 알들이 물론 평등하게 분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과 알들은 모두 모아 마구간의 돼지들에게 갖다 줘야 한다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 명령에 몇몇 동물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문제에 관해선 돼지 전원이 완전 합의를 본 상태였고 스노볼과 나폴레옹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의견이 일치했다.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다른 동물들에게 설명하느라 언변가 스퀄러가 파견되었다.

"동무들, 여러분은 설마 우리 돼지들이 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는 무슨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진 않겠지요? 사실은 우유, 사과를 싫어하는 돼지들도 많아요. 나도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돼지들이 우유와 사과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무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진 일입니다. 우리 돼지들은 머리 쓰는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농장의 경영과 조직은 전적으로 우리 돼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밤낮으로 여러분의 복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돼지들이 우유를 마시고 사과를 먹어야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중략)

농장의 삶은 고되었다. 지난해처럼 이번 겨울도 혹독했고, 식량은 그 때보다 더 부족했다. 돼지와 개들만 빼놓고 다른 동물들에게 돌아가는 식량 분배량은 또 다시 줄어들었다.

조지 오웰, 『동물농장』(고등학교 문학II, OO출판사)

[문제 1]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요지와 <제시문 2>의 요지를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2>에서 돼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스퀄러의 주장을 <제시문 1>의 공통된 관점에서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3>

정의는 크게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된다.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평균적 정의는 배상적 정의와 형벌적 정의로 나뉘며, 이것은 주로 국가의 법을 집행함으로써 실현되는 정의를 말한다. 배분적 정의는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배분적 정의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놓고 사람들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 배분적 정의에서 배분의 대상은 부, 권력, 기회 등 개인적, 사회적 이익과 납세 또는 국방의 의무 등 부담이다. 그것들의 응분의 몫을 사회구성원들에게 분배할 때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분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응분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 응분의 몫은 능력에 따라, 또는 필요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특정 기준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 같은 경우인데도 다르게 대우하거나, 다른 경우인데도 똑같이 대우한다면 이는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OO출판사, 『고등학교 도덕』에서 변용

<제시문 4>

(가)

일수벌금제(Daily Fines System)는 범죄자가 저지른 불법의 정도를 계산하여 벌금 일수를 정하고, 1일 벌금액을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이다. 핀란드 OO기업의 부회장인 안시 반요키가 오토바이를 타다 과속으로 적발돼 14일분의 급여인 11만 6,000유로(약 1억 3,000만 원)의 범칙금을 낸 사례가 유명하다.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3개국은 이 제도를 20세기 초반에 도입하였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1970년대 중반에, 프랑스는 1980년대 초반에 실시하였다.

OO출판사, 『고등학교 사회』

(나)

커트 보네거트의 단편 <해리슨 버거론>은 이를 반유토피아 공상과학으로 묘사한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해는 2081년이었다. 모든 사람이 마침내 평등해졌다. (중략)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생기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거나 빠르지 않았다." 이 철두철미한 평등은 미국 평등관리국 요원들이 이루어낸 성과다. 평균 이상의 지식을 가진 시민들은 귀에 정신장애 수신기를 꽂고 다녀야 한다. 정부는 약 20초마다 날카로운 잡음을 쏘아 보내 이들이 "두뇌를 이용해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한다.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임금과 더불어 하늘이 준 직분을 행하는 것이니 재능이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늘이 인재를 내는 것은 본디 한 시대의 쓰임을 위해서이다. 그래서 하늘이 사람을 낼 때는 귀한 집 자식이라고 하여 풍부하게 주고 천한 집 자식이라 하여 인색하게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옛날의 어진 임금은 이런 것을 알고, 인재를 더러 초야(草野)에서도 구하고 더러 항복한 오랑캐 장수 중에서도 뽑았으며, 더러 도둑 중에서도 끌어올리고, 더러 창고지기를 등용하기도 했다. 이들은 다 알맞은 자리에 등용되어 재능을 한껏 펼쳤다. 나라가 복을 받고 치적(治積)이 날로 융성케 된 것은 이 방법을 썼기 때문이다.

허균, 『유재론』(EBS 7030 파이널 국어B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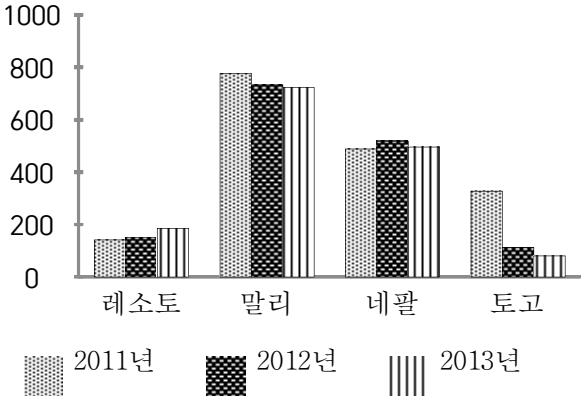
<자료>

[표] 2013년 주요 국가별 공적개발원조(ODA) 부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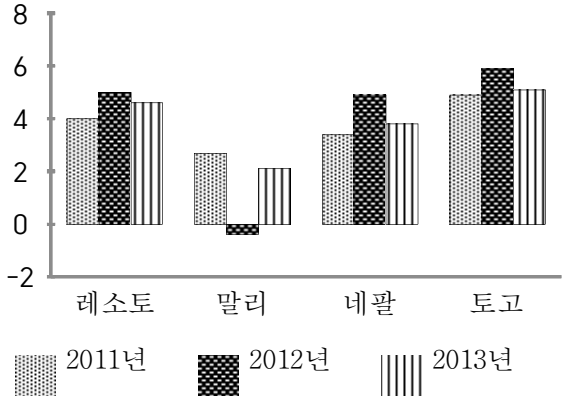
구분	미국	스웨덴	한국
원조 총액	52억 달러	31억 달러	16억 달러
국민총소득대비 원조 비율 (UN이 제시한 권고치는 0.7%)	0.19%	0.97%	0.14%

* 출처: 통계청
* 공적개발원조(ODA)는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조공여국이 자체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수원국에게 공여하는 순수한 원조임
* ODA의 효과는 그 해에 즉시 나타난다고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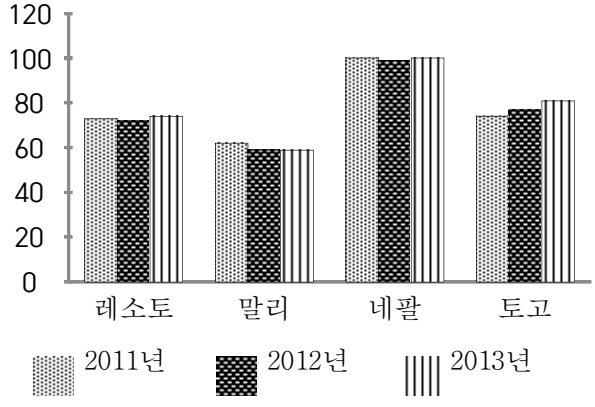
[그림 1] 수원국별 ODA 수혜총액 (단위: 백만 달러)



[그림 2] ODA 수원국별 GDP 성장률 (단위: %)



[그림 3] ODA 수원국별 초등교육 이수율 (단위: %)



* 출처: The World Bank

[문제 3] <제시문 3>을 활용하여 <제시문 4>의 (가), (나), (다)를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표]에서 어느 국가가 <제시문 3>의 배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지 설명하고, [그림 1], [그림 2], [그림 3]에 근거하여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느 수원국이 ODA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했는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 PART I

- Ⅰ은 세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문제1과 문제2가 주어진다. 문제1은 200자 내외로 <제시문 1>(가)와 (나)의 공통요지와 <제시문 2>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학문 탐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요지 파악과 요약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제시문 1> (가)는 이타적 행동이 이기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나)는 이기적 행동이 이타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공통요지는 (공생적 삶에서) 이기적 행동과 이타적 행동은 배타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양면/인과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제시문 2>의 요지는 스퀄러가 우유와 사과를 독차지하기 위한 돼지들의 이기적 행동을 이타적 행동이라고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시문 1> (가)는 영문으로 주어졌다. 영문 자료를 제시한 것은 언어 및 외국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을 감안할 때 영어 실력은 학생 선발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이다.
- 문제2는 <제시문 2> 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의 주장내용을 <제시문 1>의 공통된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다. <제시문 2>에서 스퀄러는 이기적이고 불평등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과와 우유의 분배 행위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된 관점에서 볼 때, 스퀄러의 주장은 돼지들의 이기적 행동이 이타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스퀄러가 주장하는 이기심과 이타심의 상호적 관계성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그의 주장은 이기적 행동을 이타적으로 가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겨울이 되어 돼지와 개를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에게는 식량사정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퀄러의 주장은 돼지 집단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다른 동물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생적이고 이타적인 행위로 귀결될 수 없는 한계성을 지닌다. 이 문제는 서로 다른 분야에 관한 제시문의 핵심을 적절하게 이해/파악한 후 한 제시문으로 다른 제시문을 비판하여 서술해야 한다.

○ PART Ⅱ

- 문제3은 <제시문 3>을 활용하여 <제시문 4>의 (가), (나), (다)를 비교 · 분석하는 것이다. <제시문 3>에서 평균적 정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배상을 하거나 형벌을 내려 실현되는 정의를 말하고, 배분적 정의는 이익과 부담을 특정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정의를 말한다. <제시문4>의 (가), (나), (다)는 정의 실현 원리가 적용된 다양한 사례들이다. (가)의 일수벌금제는 범죄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재화가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된 사례이다. (나)에서 그려지는 사회는 그 누구도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의 능력을 철두철미하게 평준화시킨다는 점에서 평균적 정의의 원리가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다)는 재능의 유무에 따라 배분적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임금이 인재 등용의 기회를 신분에 관계없이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평균적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분석하여 제시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적절하게 이해/분석/비교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 문제4는 [표]에서 <제시문 3>의 배분적 정의 실현을 위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그림1], [그림2], [그림3]에 근거하여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느 수원국이 ODA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했는지 추론하는 것이다. [표]를 배분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할 때, 스웨덴의 경우 국민총소득(GNI) 대비 원조 비율이 0.97%로 유엔 권고비율 0.7%를 유일하게 넘는다. 따라서 스웨덴이 배분적 정의를 가장 잘 실현하고 있다.

  한편, 1) 수원국들 중 토고가 ODA의 목적인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의 관점에서 수혜총액 대비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토고는 <그림 3>에서 보듯 수혜총액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이

고 지속적인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초등교육 이수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즉 2011년을 제외하고 2012, 2013년 모두 토고가 레소토보다 수혜액 대비 GDP 성장률과 초등교육 이수율이 높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즉 2) 수원국들 중 레소토가 ODA의 목적인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의 관점에서 수혜총액 대비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레소토는 <그림 3>에서 보듯 3년 평균 수혜액 대비 평균 GDP 성장률과 평균 초등교육 이수율이 토고보다 약간 높기 때문이다. (1)과 2) 모두 인정)

말리는 수혜총액이 월등히 많지만 2012년도에는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초등교육 이수율은 안정적이나 토고에 비해 저조하다. 네팔은 수혜 총액 대비 GDP 성장률이 토고보다 작고 초등교육 이수율이 감소세를 보인다.

따라서 토고(또는 레소토)가 ODA의 목적인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의 관점에서 수혜총액 대비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토요일 오후)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Researchers had adults in their twenties wear preprogrammed digital watches for one week. Each time the watch beeped, the person recorded feelings, thoughts, and activities at that moment. Guilt was pervasive.* When the researchers extrapolated* from their findings, the data suggested that, on average, adults feel moderate guilt for thirty-nine minutes per day. That's a lot of guilt. […] How many minutes are you spending each day feeling guilty? And what are you feeling guilty about?

If your emotional life is governed by guilt, you are wasting too much energy on that emotion. That's not to say that all guilt is bad—some guilt is a good thing. Guilt may have evolved because it helps us to change our course of action and make compensations.* When our guilt stems from situations like overeating, postponing, or wasting money, it signals us that there has been a breakdown in self-control. It forces us to pause and provides us the opportunity to regain control of ourselves. We've all experienced the "internal break" function of guilt. Remember the last time that you skipped going to the gym? Guilt, and the accompanying grief and regret, is the emotion that gets us to drag our heavy bodies onto the treadmill. Guilt is a powerfully motivating emotion.

One useful function of guilt is to get us to stop doing whatever it is that we are doing that is generating the guilt. Another is to motivate us to make amends.* When we feel guilty about having harmed others, we can apologize and try to repair the damaged relationship, which, for a species that is dependent on others for survival, is an evolutionarily sound strategy.

*pervasive: 만연한, 스며드는　　*extrapolate: 추론하다
*compensation: 보상　　*make amends: 보상해 주다

K. Reivich and A. Shatté, *The Resilience Factor* (EBS 수능특강 영어)

<제시문 2>

'그럼, 어쩐단 말이야, 식민지 백성이 별수 있었어. 날구뛴들 소용이 있었느냐 말이야. 어느 놈은 일본 놈한테 아첨을 안 했어. 주는 떡을 안 먹은 놈이 바보지. 흥, 다 그놈이 그놈이었지.' 이인국 박사는 자기변명을 합리화시키고 나면 가슴이 좀 후련해왔다. 거기다 어저께의 최종 취조 장면에서 얻은 소련 고문관의 표정은 그에게 일루의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있었다. 물론 그것이 억지의 자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지만. 아마 스텐코프 소좌라고 했지. [중략] 수술은 예상 이상의 단시간으로 끝났다. 위생복을 벗은 이인국 박사의 전신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완치되어 퇴원하는 날 스텐코프는 이인국 박사의 손을 부서져라 쥐면서 외쳤다. "꺼삐딴 리, 스바씨보." 이인국 박사는 입을 헤벌리고 웃기만 했다.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만 같았다. [중략] 그는 혈압 때문에 술을 조절해야 하는 자기 체질에 알맞게 스카치 잔을 핥듯이 조금씩 목을 축이면서 브라운 씨의 이야기를 기다렸다. "그거, 국무실에서 통지 왔습니다." 이인국 박사는 뛸 듯이 기뻤으나 솟구치는 흥분을 억제하면서 천천히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탱큐, 탱큐." 어쩌면 이것은 수술 후의 스텐코프가 자기에게 하던 방식 그대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인국 박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구, 나의 처세법은 유에스에이에도 통하는구나 하는 기고만장한 기분이었다.

전광용, 『꺼삐딴 리』(문학 I, ○○○ 출판사)

<제시문 3>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 보내 주신 학비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 나는 다만, 홀로 침전(沈澱)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곰 내몰고, / 시대처럼 올 아츰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후략]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고등 국어·상, ○○교육)

[문제 1] <제시문 1>, <제시문 2>의 요지와 <제시문 3>에 나타난 주제 의식을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1>에서 'guilt(죄책감)'의 역할을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2>의 주인공과 <제시문 3>의 화자가 처한 각각의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윌리엄 라보프는 뉴욕 사람들 중 모음 뒤의 [r]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현상에 주목하고, 뉴욕 시민들의 [r] 음과 사회계층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하여 이를 밝히기 위해 창의적 연구를 설계하였다.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계층을 객관화된 방법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백화점을 실험 장소로 선정하였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어울리는 백화점을 찾을 것이고, 그들을 대하는 직원들이 고객의 계층에 걸맞은 언어를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고객의 언어를 반영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백화점을 고객 계층에 따라 상, 중, 하로 나누고 A백화점 68명, B백화점 125명, C백화점 71명의 직원(총 264명)에게 “fourth floor”를 발음하도록 유도하여 [r] 음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획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A백화점에서는 30%, B백화점에서는 20%, C백화점에서는 단지 4%의 피험자들이 [r] 발음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보프는 사회경제적 상위계층의 [r] 발음 실현 비율이 하위계층의 그것보다 높음을 밝혀냄으로써 언어 사용과 사회적 계층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일반화를 이끌어 내었다.

W. Labov, ‘Social Stratification of (r) in New York Department Stores’에서 재구성

<제시문 5>

서울의 달동네로 알려진 ○○동 현장 연구를 시작했을 때, 주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나는 자세하게 알고 있지 못했다. 그들의 가난은 집안에 들어섰을 때에야 실감할 수 있었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가 친근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할 것인가였다. 그래서 특정 사례들의 전형적 특성을 찾아내는 질적 연구방법인 참여관찰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몇몇 가족들 중에서 □□할머니 가족은 빈곤의 세대 재생산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고, 구술생애사 연구를 하기에도 적합했다. 월남해서 서울에서 계속 판자촌과 달동네를 전전한 할머니의 가족사는 가족이야말로 사회 구조와 역사와 개인이 만나는 접점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할머니 가족에 집중하게 되었을 때부터 객관적 자료 수집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점차 이들에 대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 기술 같은 것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조은, 『사당동 더하기 25』 에서 재구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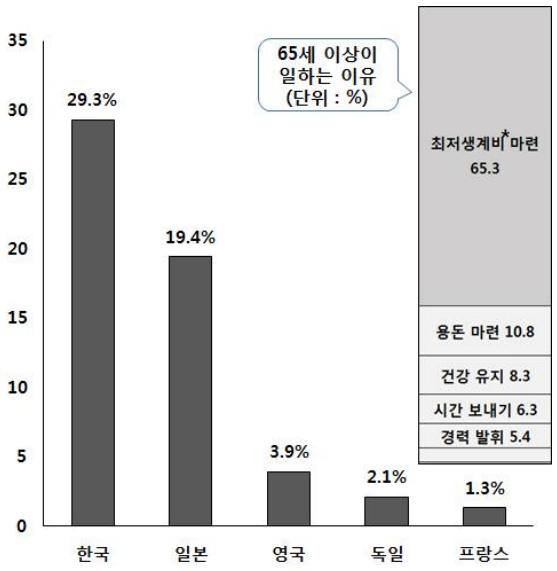
[표 1] OECD 5개국의 노인 빈곤율 비교

(단위 %, 노인은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전체 빈곤율
프랑스	8.8	7.1
독일	8.4	11
영국	10.3	8.3
일본	22	14.9
한국	45.1	14.6
OECD 평균	13.5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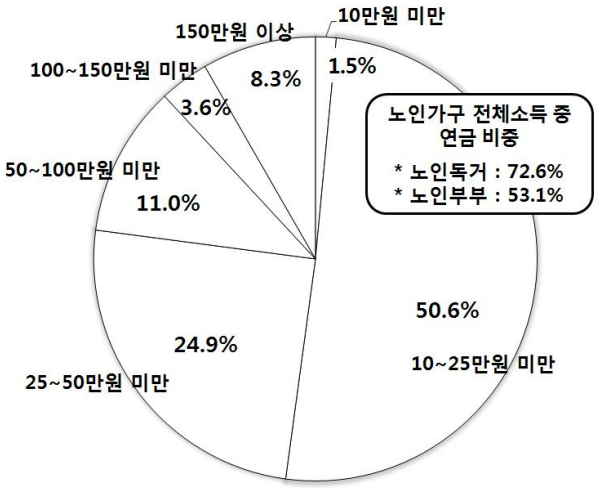
* 전체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 50% 이하의 비율

[그림 1] OECD 5개국 일하는 노인 비율 및 한국 노인이 일하는 이유



*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62만원 (2015년 기준)

[그림 2] 노인(65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연금 수령액



[표 2]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연도	총인구 (천명)	인구 구성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1990	42,869	25.6	69.3	5.1
1995	45,093	23.4	70.7	5.9
2000	47,008	21.1	71.7	7.2
2005	48,138	19.2	71.7	9.1
2010	49,410	16.1	72.8	11.0
2013	50,220	14.7	73.1	12.2
2014	50,424	14.3	73.1	12.7
2030	52,160	12.6	63.1	24.3
2040	51,091	11.2	56.5	32.3

출처: 통계청 (2015), 서울연구원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자료를 가공

[문제 3] 사회 현상에 접근하는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상반된 연구방법을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표 1], [그림 1], [그림 2]를 활용하여 한국 노인 복지의 문제점을 찾고, <제시문 4>의 연구방법이 전제하고 있는 관점에서 [표 1], [그림 2], [표 2]로부터 향후 한국 노인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2가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 PART I

1. Part I은 영어 제시문 한 개와 우리말 제시문 두 개로 구성하였다.
2.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비교 분석 및 적용 추론을 하도록 하였다.
3. <문제 1>에서는 핵심어(keyword)가 아닌 글의 요지와 주제 의식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가. <제시문 1>의 요지 : 사람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인 죄책감에 주목하고, 죄책감의 순기능적인 역할로 죄책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중단하게 하는 것과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 <제시문 2>의 요지 : 주인공인 이인국 박사는 시대에 따라 일제, 소련, 미국 등으로 변하는 강자들에 아첨하여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회주의적인 자신의 처세법이 성공적임에 만족해 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
4. <문제 2>는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서, <제시문 1>의 관점에서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논하도록 하였다.
   가. <제시문 3>의 요지 : 화자는 조국의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일본에서 학업을 하고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에서 죄의식을 느끼고, 소극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희망하고 있다.

○ PART II

1. Part 2의 <문제 3>과 <문제 4>에서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비교 분석 및 적용 추론을 하도록 하였다.
2. <문제 3>에서는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방법론적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 <제시문 4>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양적 연구방법의 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양적 연구방법은 과학적, 객관적 연구를 지향하며, 자료들을 계량화하여 엄밀한 분석 과정을 거친 뒤 가설을 검증하고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 <제시문 5>는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연구방법인 질적 연구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질적 연구방법은 사례 연구 중심이며 현장 연구를 지향한다.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 참여관찰이나 구술생애사 인터뷰 같은 방법을 통해 그들의 삶과 문화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문제 4>에서는 <제시문 4>의 관점을 <자료>에 적용하여 어떠한 문제 해결 방안을 추론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 <자료>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과 복지의 문제를 다룬다. 양적 연구방법의 관점에서 그림과 표를 종합적으로 읽고 해석하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노인 빈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으며 노인 복지 문제 해결방안도 추론할 수 있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일요일 오전)

논 술

한국외국어대학교

수험번호 ( ) 지원모집단위 ( ) 성명 (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은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 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 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兩)을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중략)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요,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박지원, 『허생전』(고등학교 문학I, OO출판사)

<제시문 2>

(가)

시장 경제 체제는 가계나 기업 같은 민간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자원이 배분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시장에서 이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적 재산권과 이윤 추구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중략) 시장 경제 체제의 또 다른 장점은 시장을 통해 구성원들의 선호와 능력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 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누가 무슨 일을 잘 하는지, 또 누가 어떤 재화를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모든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시장이 이런 기능을 수행해 준다.

OO출판사, 『고등학교 경제』

(나)

Language policy in Latin America is assimilationist*, seeking "to impose the colonial languages on speakers of other languages, whether they be immigrant, slave, or indigenous* people." Spanish-speaking settlers in Latin America shared a puristic language ideology which initially considered anything indigenous to be impure.

When considering the flexibility, creativity, and social aspect of language, employing a unilingual policy on a national level raises certain concerns. Saussure, a Swiss linguist, argued that language arbitrariness* should be a point of consideration and mentioned that language communicability is achieved through the natural inclinations of a language community.

Nevertheless, a national policy on language, as set by the government, warrants certain merits. A government bears the responsibility of prescribing a communal identity to an eclectic* collection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ethnic groups to promote effective communication among its members and advance the nation.

*assimilationist: 동화주의자 *indigenous: 토착의/원산의 *arbitrariness: 임의성 *eclectic: 절충적

B. Spolsky, *Language Policy* 외에서 변용

[문제 1] <제시문 1>과 <제시문 2> (가)와 (나)의 요지를 설명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2> (나)의 요지를 활용하여 <제시문 1>에 나타난 허생의 매매 행위에 대해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3>

오빠는 실내를 세심히 둘러볼 것도 없이 카밀을 보자 와락 눈살부터 찌푸렸다.

"마침 잘 왔네, 오빠." / 나는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가게 인테리어 어때? 아주 예쁘잖아, 엘레강스하고." / "뭐하고 있는 거냐?"

"뭐하긴, 일 끝나고 축배를 드는 거지. 오빠도 앉아 봐. 여긴 오빠도 만나 본 카밀이고, 여긴 필리핀에서 온 로리 씨. 두 분이 해 줘서 인테리어 비용 반 이상 아꼈어."

"내가 경고했을 텐데....." / 오빠는 카밀에게 쏘아붙였다.

"네가 뭔데 여기 있는 거야? 정말 끌려가고 싶어서 이래?"

"왜 다짜고짜 반말을 해, 오빠는." / 내가 오빠를 가로막고 나섰다.

(중략)

나는 오빠가 그렇게 흥분하는 걸 최근에 처음 보았다.

"날 도우러 온 거야. 오빠의 이런 무례, 이해할 수 없어."

"무례? 저런 놈들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니? 뻔할 뻔 자야. 너도 미국에서 자존심도 없는, 치사하고 더러운 멕시칸들 많이 겪어 봐서 알잖아. 네 막내 오빠를 죽인 그놈들이야. 네게 맡겨 달라고 해서 설마설마, 참고 기다려 왔는데 도대체 네 꼴이 지금 뭐냐?"

"카밀은 멕시칸이 아니야."

"멕시칸보다 더 못사는 놈들이잖아. 난 절대로 용납 못한다. 네가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나설 수밖에. 어디 남자가 없어서 하필 네팔 놈이야?"

"오빠!" 나는 참지 못하고 쨍 소리쳤다.

"오빠가 네팔에 대해 뭘 알아? 나마스테 알아? 히말라야, 카일라스* 알아? 난 오빠가 그렇게 천박한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인 줄 몰랐어."

"시끄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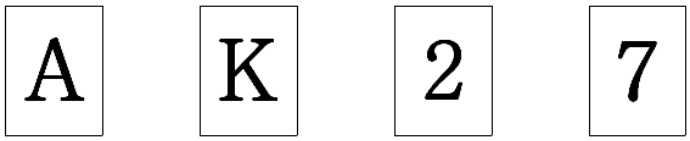
"오빠같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해 못해. 나마스테를 오빠가 어떻게 알고 카일라스를 또 어떻게 이해하겠어? 오빠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네팔 사람들, 백 배는 나아. 어디 사람이 없어서 네팔 사람이냐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래, 오빠, 이 땅에서 어디 사람다운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 나 혼자 잘 먹고 잘살자고 악을 쓰는 오빠 같은 사람 말고, 못살고 힘없는 사람은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사람 같지 않은 종자들 말고, 카밀보다 더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데려오면 그 사람하고 사귈게. 그 사람 애도 낳고 그 사람 위해 밥도 짓고 국 끓이고 할게. 나도 이런 생활 지긋지긋해. 오빠처럼 오로지 돈, 돈, 돈, 혈안이 된 사람들도 지긋지긋하고, 약하고 가난하면 무조건 밟아도 좋다는 야만종들도 지긋지긋하단 말야. 차라리 다시 이민이라도 가고 싶은 심정이야. 오빠 내가 어떤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나 해?"

지나던 사람들이 가게 안을 기웃거렸다.

* 카일라스: 중국 티베트 자치구 서남쪽에 있는 산. 라마교의 성산

박범신, 『나마스테』(EBS 인터넷수능 국어B형)

<제시문 4>



P. C. Wason(1966)은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만약 카드의 한 쪽 면이 모음이라면, 다른 한 쪽 면은 짝수이다"라는 규칙을 검증하게 하여 이 과정에서 나타난 행동양상을 관찰하였다.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제시한 네 가지 카드는 모두 한쪽 면에 숫자가, 다른 한쪽 면에 글자가 있었다. 그림에서와 같이 카드의 보이는 면에는 각각 'A', 'K', '2', '7'이 쓰여 있었다. 만약 이 규칙이 참이거나 거짓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들을 뒤집어야 할까? 논리적 관점에서 보면, 'A'와 '7' 카드가 잠재적으로 '모음-짝수' 규칙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카드를 뒤집어야 한다. 반면에 'K'와 '2' 카드의 다른 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것들을 뒤집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관찰 결과에 따르면 10%보다 적은 참가자들만이 논리적으로 옳은 카드를 선택했다. 대신에, 참가자들은 규칙에 단순히 언급된 'A'와 '2' 카드를 선호했다. 그리고 옳은 카드를 선택했더라도 규칙을 기각할 수 있는 '7' 카드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A' 카드를 선호하였다. Wason은 이와 같은 피험자들의 논증방식을 근거로 사람들이 가설을 논박하기보다는 오히려 확증하려고 하는 편향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K. Lamberts & R. L. Goldstone (Eds.), *Handbook of Cognition*에서 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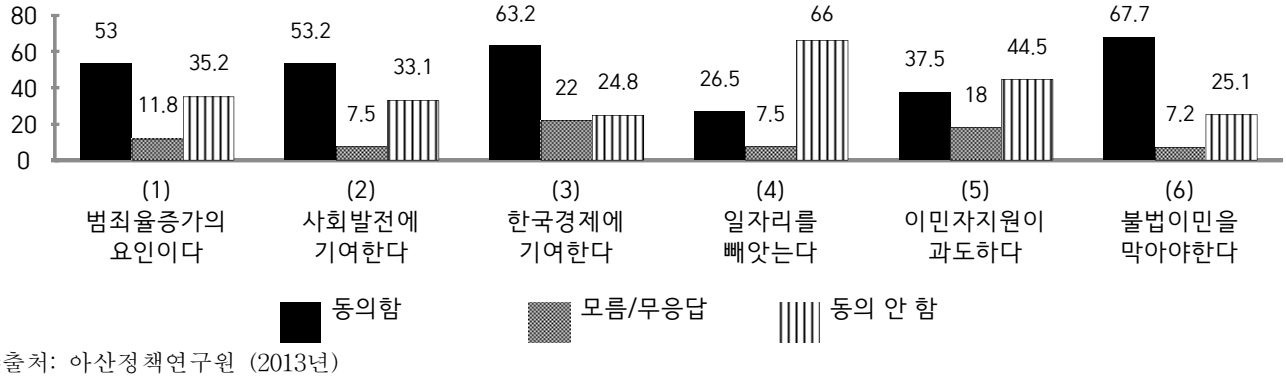
<자료>

[표] 한국의 고용 동향 (단위: 천명)

구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내국인	26,195	25,398	797
외국인	793	760	33

*출처: 통계청 (2013년)

[그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단위: %)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2013년)

[문제 3]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비교 · 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4>에 나타난 주장에 근거하여 <제시문 3>의 '오빠'와 '나'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림]의 항목들을 분류하고, 이 중에서 [표]와 관련된 가장 적절한 항목을 각각 찾아 이와 연관시켜 [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 PART Ⅰ

- 문제1

<제시문 1>은 허생이 취약한 시장구조 하에서 수완을 발휘하여 매점매석을 통해 많은 이윤을 남긴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2> (가)는 시장 경제 체제 속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경쟁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내용이다. <제시문 2> (나)는 국가가 언어동화정책을 통해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통합적 정체성을 부여하고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 문제2

<제시문 2> (나)는 국가가 언어의 순수성 유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언어를 통제하고 언어사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적용해 본다면, 경제 내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도출된다. <제시문 1>에 나타난 허생의 매점매석 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상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따른다면 허생의 이윤추구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실제로 이러한 매점매석 행위는 경제정의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허생의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이다.

○ PART Ⅱ

- 문제3

<제시문 3>과 <제시문 4>는 공통적으로 치우침/편견/편향의 현상을 다루고 있다. <제시문 3>에는 미국 내 멕시코 사람이나 그보다도 못산다고 생각하는 한국 내 네팔 이주민에 대한 오빠의 인종차별적 편견이 드러나 있는 한편, <제시문 4>는 인지심리학적 실험을 통해 나타난 사람들의 논증적 사고과정에서의 편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치우침/편견/편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제시문 3>의 오빠가 가진 인종차별적 편견은 동생이 멕시코 사람에게 살해당한 개인적 경험과, 가난한 자를 얕보는 태도로부터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제시문 4>의 논증적 사고과정에서 나타난 피실험자의 편향성은 인간이 가진 일반적 인지성향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 문제4

<제시문 4>의 주장은 사람들이 가설을 확증하려는 편향성에 따라 자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3>의 '오빠'와 '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다. 그 입장들은 주관적 견해이므로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 오빠는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정당화하려고 편향된 방식으로 <그림> (1), (6)을 선택할 것이다. 반면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확증하려고 (2), (3), (4), (5)만을 선택할 것이다. 한국의 고용 동향을 보여주는 <표>에서, 오빠는 (6)을 근거로 외국인 취업자 76만 명에는 불법이민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하여 이들 모두가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3) 또는 (4)를 근거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거나 외국인 취업자의 비중은 미미하므로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지도 않는다고 해석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일요일 오후)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가파른 비탈만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속리산은 순하디순한 길을 열어 보였다
산다는 일은
더 높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듯
평평한 길은 가도 가도 제자리 같았다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 있는 나에게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다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산 속에 갇힌 시간일 거라고,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을 거라고,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를
길게 길게 늘여서 내 앞에 펼쳐주었다

나희덕, 「俗離山에서」 (EBS 인터넷 수능 국어 B형)

<제시문 2>

재독 한인 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긍정성의 과잉으로 인한 '피로사회'라고 진단하였다. 그는 근대 서양 사회를 지배해 온 부정성의 패러다임, 즉 금지, 강제, 규율, 의무, 결핍, 타자에 대한 거부 등이 적어도 20세기 말부터 긍정성의 패러다임, 즉 능력, 성과, 자기 주도, 타자성의 소멸 등으로 전환되었거나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의 사회가 규율 사회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복종적 주체라고 한다면, 오늘날은 그 자리에 성과 사회, 성과 주체가 대신 들어선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근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 사회, 긍정성 과잉의 사회는 흔히 얘기되는 탈근대 사회의 다른 이름이다. 냉전의 종식, 다문화주의, 바이러스성 질병의 효과적 퇴치, 규제와 억압의 철폐와 개인적 욕망의 긍정 등 다양한 차원에서 관철되는 긍정성의 패러다임은 탈근대 사회의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긍정성의 과잉이 자아를 새로운 궁지로 몰아가기도 한다. 마치 늘어나는 자기 자신의 지방질에 병들어 가는 사람처럼, 성과 주체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마모시켜 간다.

한병철, 『피로사회』에서 재구성 (EBS 수능완성 국어 B형)

<제시문 3>

A writer is someone who spends years patiently trying to discover the second being inside him and the world that makes him who he is. When I speak of writing, what comes first to my mind is not a novel, a poem, or a literary tradition; it is a person who shuts himself up in a room, sits down at a table, and turns inward when alone. Amid its shadows, he builds a new world with words. […] From time to time, he may rise from his table to look out through the window at the children playing in the street and, if he is lucky, at trees and a view, or he can gaze out at a black wall. He can write poems, plays, or novels, as I do. All these differences come after the crucial task of sitting down at the table and patiently turning inwards. To write is to turn this inward gaze into words, to study the world into which that person passes when he retires into himself, and to do so with patience, obstinacy,* and joy. As I sit at my table—for days, months, years—slowly adding new words to the empty page, I feel as if I am creating a new world, as if I am bringing into being that other person inside me.

*obstinacy: 완고함, 집요한 끈기

O. Pamuk, Speech of Nobel Prize Laureate in Literature, 2006

[문제 1] <제시문 1>에 나타난 주제 의식과 <제시문 2>, <제시문 3>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3>에서 밑줄 친 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설명한 후, 이것을 바탕으로 <제시문 1>의 화자가 겪는 변화를 평가하고 <제시문 2>의 문제 상황을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4>

카사데발 교수와 피로프스키 교수는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지나치게 강조한 의학 패러다임이 오히려 전염병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숙주(사람) 없이 미생물 혼자서 질병을 일으킬 수는 없다"며 "질병은 숙주와 미생물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능한 결과들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병원체라는 용어로 미생물을 지칭하는 것이 연구자나 의사의 관심을 미생물에만 집중하게 해 효과적인 치료법의 발견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생물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숙주와 미생물의 상호작용이 숙주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지, 있다면 왜 그런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연구자들이 미생물 감염으로 일어난 숙주의 손상에 대해 고찰한 결과, 감염 질환으로 인한 손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미생물의 직접 타격에 의한 손상이고 다른 하나는 면역계의 과잉반응에 의한 손상이다. 숙주의 반응이 미약할수록 미생물로 인한 숙주의 손상이 심해지고, 숙주의 면역계 반응이 과도해도 역시 숙주의 손상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각 매체에서 면역계를 강화한다며 소개하는 건강식품들을 면역력이 적당한 사람들이 먹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건 아닐까.

강석기, '병원체에 대한 고찰', ○○사이언스에서 재구성

<제시문 5>

어떤 사물을 볼 때, 그 사물은 외부자극이 되어 인간의 인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처럼 여겨왔다. 예를 들어 '바나나'라는 개체가 눈앞에 존재하면, 그 외부자극이 인간의 인지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순간 시각적으로 인지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퍼키 효과(Perky's Effect) 실험에 따르면 사물의 시각적 인지는 그처럼 단순하지만은 않다. 인지심리학자 퍼키는 빈 벽에 영상을 투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사람들이 눈앞에 없는 해당 대상물을 보고 있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하였을 때, 어떤 작용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실험이었다.

<실험 방법>

- 실험대상 집단1: '바나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함.
- 실험대상 집단2: '바나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음.
- 과정1: 두 집단 모두에게 빈 벽을 응시하게 함(피실험자가 알지 못하게 빈 벽 뒤에 영사기를 배치함).
- 과정2: 피실험자들이 '바나나 영상'을 인지할 때까지 선명도를 서서히 높이며 빈 벽에 투사함.
  처음에는 피실험자들이 의식적으로 보고자 해도 보이지 않을 정도(정상치 이하)의 선명도로 투사하다가, 그 선명도를 점차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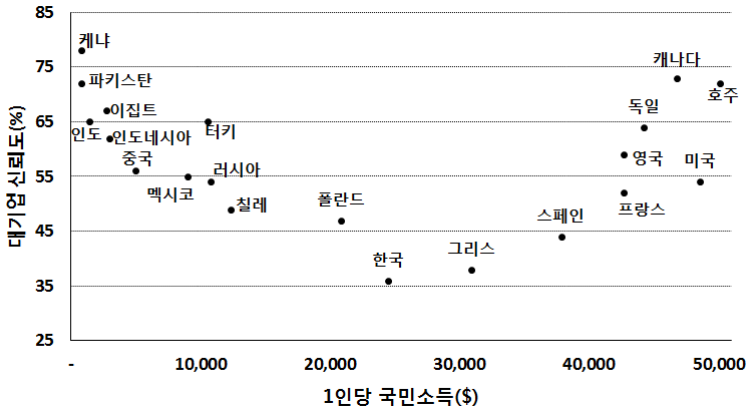
<실험 결과>

실험대상 집단1 대부분이 선명도가 정상치 이상이 될 때까지 '바나나 영상'을 실제 영상이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머릿속 상상의 결과라고 믿었다. 반면 실험대상 집단2는 선명도가 정상치에 이르렀을 때 '바나나 영상'을 실제 영상으로 인지하였다. 이는 사물을 볼 때, '사물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시각적 인지를 방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자극뿐만 아니라 대상을 상상하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요소도 인간의 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방증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빠른 대상 인지능력을 보유한 특정 소수에 대한 연구도 보고된 바 있는데, 이 집단은 심리적 요소와 상관없이 영상의 실제 구현물을 빠르게 알아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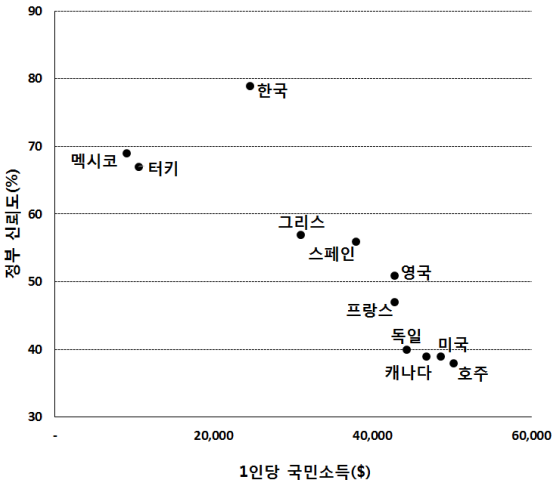
B. Bergen, *Louder than Words*에서 재구성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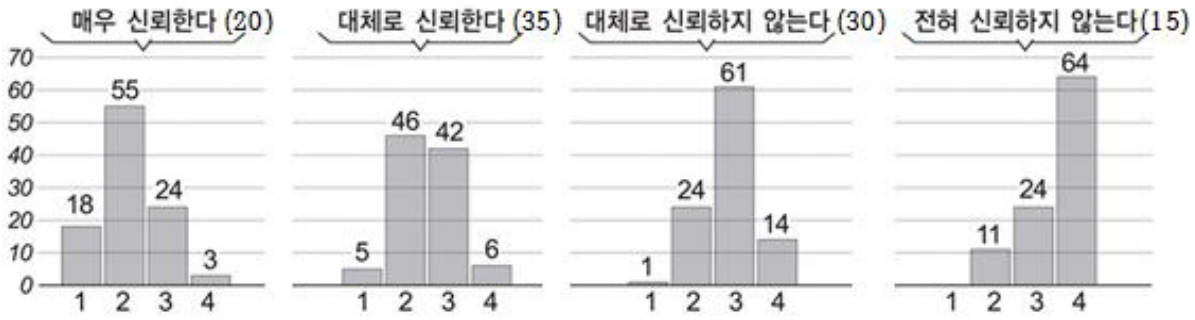
[그림 1] 경제 발전 수준과 자국 대기업 신뢰도 간의 관계



[그림 2] OECD 국가의 경제 발전 수준과 정부 신뢰도 간의 관계



[그림 3] A국 정부 신뢰도에 따른 자국 대기업 신뢰도* 변화 (단위: %)



* x축의 대기업 신뢰도: 1점 매우 신뢰, 2점 대체로 신뢰, 3점 별로 신뢰하지 않음, 4점 전혀 신뢰하지 않음

출처: GlobeScan·동아시아연구원·사회적기업연구소 <RADAR 2013 조사>를 가공

[문제 3] <제시문 4>와 <제시문 5>를 '자극-반응'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4>와 [그림 1]에 나타난 유형을 설명하고, <제시문 5> 밑줄의 위상에 해당하는 [그림 2] 국가의 정부 신뢰와 대기업 신뢰 관계를 [그림 3]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문항 해설

○ PART I

1. Part I은 우리말 제시문 두 개와 영어 제시문 한 개로 구성하였다.
2. <문제 1>에서는 핵심어(keyword)가 아닌 글의 요지와 주제 의식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가. 제시문1 요지: <제시문 1>은 발전과 성공, 더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수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수평적인 가치 속에서 생활해야 함을 드러낸다.
   나. 제시문2 요지: <제시문 2>는 오늘날의 서구사회를 이끌고 있는 것은 긍정성의 패러다임이라고 진단하고, 그것의 과잉이 야기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3. <문제 2>는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서, <제시문 3>의 관점을 토대로 <제시문 1>과 <제시문 2>를 비판적으로 논하도록 하였다.
   가. 〈제시문 3〉 에서는 영어 제시문으로 터키를 대표하는 작가인 오르한 파묵의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연설을 사용하였다. 파묵의 영문 연설은 내용면에서도 큰 울림을 줄 뿐 아니라 어휘나 문장의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교 교과과정의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글이고,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말 뜻을 제공하였으므로 의미 파악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제시문 3>은 집필(창조)은 외형적 결과물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만의 공간에서 내면을 살피며 찾은 새로운 자신과 세계를 그려내는 것임을 보여준다.

○ PART II

1. Part II는 제시문 두 개와 자료 한 개로 지문을 구성하였다.
2.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문제 3>과 <문제 4>에서는 비교 분석 및 적용 추론을 하도록 하였다.
3. <문제 3>에서는 <제시문 4>와 <제시문 5>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 <제시문 4>는 미생물의 자극과 인체의 반응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미생물뿐 만 아니라 미생물과 인체(숙주)의 상호작용도 인체(숙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제시문 5>는 외부 사물의 자극과 인간 인지체계의 반응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 외부 사물의 자극뿐 만 아니라 사물을 상상하는 것도 인지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문제 4>는 주어진 <제시문 4>, <제시문 5>,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유형과 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가. [그림 1]은 20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1인당 국민소득)과 각 국가의 자국 대기업 신뢰도 간 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는 OECD 11 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과 각 국가의 정부 신뢰도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그림 3]은 한 국가의 정부 신뢰도와 기업 신뢰도의 관계가 병행적임을 보여준다.